

<2018년 2월 11일 주일말씀>

<마음>과 <행실> 두 가지가 맞아야 같이 산다 <영적 장자권>을 가져라

본 문 로마서 8장 6절 (참조 : 창세기 25장 19-34절)

◎ 2018년 <희망과 감사의 해>를 맞으면서
주를 맞기 전에 막바지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으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 오늘도 말씀합니다.

오늘은 ‘<마음과 행실> 두 가지가 맞아야 같이 산다.
<영적 장자권>을 가져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 깊은 말씀입니다.

<전초>

◆ 사람은 ‘두 가지’가 맞아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이 맞아야 하고,

둘째, <마음과 생각>이 맞아야 됩니다.

<몸>이 맞아야 된다는 말은 ‘행실’이 맞아야 된다는 말이고,

<마음과 생각>이 맞아야 된다는 말은 ‘근본’을 말합니다.

- ◆ <행실 한 가지>만 맞아도 같이 못 살고,
<마음 한 가지>만 맞아도 같이 못 삽니다.

남자에게는 예쁜 여자 상대가 있고,
여자에게는 멋진 남자 상대가 있다 합시다.

- ▶ 예쁘고 멋진 상대가 <일>은 맞게 했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삽니다.

같이 좋다고 하며 행했어도 <마음>이 안 맞으면,
결국 ‘마음 천국’ 이 되지 못하여 갈리게 됩니다.

- ▶ 반면 <마음>은 잘 맞는데 **<행할 때> 안 맞으면,**
같이 행할 수가 없으니 같이 못 삽니다.

- ◆ <삼위>와도, <주>와도 그러합니다.

<행실이 안 맞는 자>는 ‘마음 한 가지’ 만 맞아 살아가고,
<마음이 안 맞는 자>는 ‘행실 한 가지’ 만 맞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실과 마음>
두 가지 다 안 맞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

- ◆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행실도 일체 됐을 때>만 ‘같이 사는 시간’ 이다.
<한 가지만 맞을 때>는 ‘같이 사는 시간’ 이 아니다.

<마음이 안 맞는 자>는 ‘마음을 거스르는 자’ 다.
마음을 거스르니, 그에 해당되는 것에는 같이 동행하지 못한다.

<행실이 안 맞는 자>는 ‘행실을 거스르는 자’ 다.
고로 행할 때 같이 동행하지 못한다.

<마음과 행실>, 둘 중의 하나만 안 맞아도
<마음>이 상하든지 <행실>이 상해서 같이 못 산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마음과 행실 두 가지가 일체 될 때>만 ‘같이 사는 시간’ 이다.

<두 가지> 다 맞지 않으면,
삼위도 주도 동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 ◆ <하나님의 구상>으로는 **마음과 행실 두 가지** 다 맞춥니다.
그러나 <사람의 구상>으로는 **마음과 행실 두 가지**를 다 못 맞춥니다.
고로 <마음과 행실>을 다 맞추려면 ‘자기 중심’ 을 빼야 됩니다.

- ◆ 사람이 ‘하나님의 일’ 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과 일체 된 것’ 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비유를 들어서 말해 주겠습니다.

남녀가 사귀다고, 혹은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무조건 일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서로 사랑했어도 헤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마음과 생각이 안 맞는다.

마음은 맞는데, 막상 뭘 하면 행실이 안 맞는다.” 합니다.

<사랑 행실>만 가지고서는 못 삽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또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못 삽니다.

<행실>이 맞아야 됩니다.

- ◆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마음이 안 맞는 자들’ 이 많습니다.
또 막상 일해 보면 ‘행실이 안 맞는 자들’ 이 많습니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자>라면,
마음도 행실도 100% 맞춰서 합니다.

- ◆ <자연성전>을 봐요.

돌 쌓을 곳에는 돌을 쌓고,
나무를 심을 곳에는 나무를 심고,
잔디성전 자리에는 잔디밭을 만들고,
호수 자리에는 호수를 만들고,
운동장으로 할 곳은 운동장을 만들고,
건물이 들어설 곳에는 건물을 만들고,
샘 자리에는 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습니다.

그 구상대로 하니 ‘삼위의 마음’ 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지 않아서 눈에 거슬린 곳>은
모두 허물고 다시 했습니다.

- ◆ <말씀>도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그대로 씁니다.

설교자는 그 심정으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전하면, ‘심정’을 거스르게 됩니다.

고로 그 사람은 쓸 수가 없고,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자기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것’만 하여,

<마음>도 <행실>도 삼위께 중심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 ◆ 한집에서 같이 살아도, 혹은 한방에서 같이 생활해도
<마음>과 <행실> 두 가지가 다 안 맞으면 같이 못 삽니다.

섭리사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가령 <마음>이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한다 합시다.

그런데 <행실>이 안 맞아서

자기가 잘 때 저 사람은 깨어서 생활하고,

자기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잠만 자고 있으면 같이 못 삽니다.

반면에, 이런 <행실들>은 잘 맞는데

<마음>이 안 맞고 <대화>가 안 통하면,

그것도 답답하고 심정에 거슬려서 같이 못 삽니다.

- ◆ 하나님 앞에도 그러합니다.

<마음과 행실> 두 가지가 안 맞으면,

<하나님의 구상>대로 안 됐으니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으면 안 받으십니다.

기계도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결합’이 안 되고,
혹여 결합이 됐다 하더라도 ‘기능’을 못 합니다.

〈마음과 행실〉 두 가지가 100% 맞아야

그것이 ‘진정 같이 사는 삶’입니다.

- ◆ 〈글자〉도 ‘점 하나’로 어떤 글씨인지 좌우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지요?
〈나〉라는 글자인데 ‘점 하나’를 돌려 찍으면 ‘너’가 되지요?

〈글자〉도 ‘점 하나’로 좌우되듯이,

〈생각 하나, 행실 하나〉로 삼위를 벗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 ◆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과 생각과 행실이 일체 돼야**
비로소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행하시는데,

‘깨끗한 구름, 빠른 구름’을 타고 행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생각도 행실도 일체 된 자**’로서,

‘**역사의 조건을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중심해서 〈약속하신 새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그러나 〈구시대〉는 ‘그’를 모르고 불신하니,

절대 하나님과 ‘마음’도 ‘행실’도 못 맞춥니다.

고로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행실>이 100% 맞아야,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 ◆ 섭리사 안에서도 <마음과 행실이 100% 맞는 자>에게만
하나님도 성령님도 동행하며 같이 살아 주십니다.

그리고 ‘뜻’ 을 펴 나가십니다.

- ◆ 하나님은 <마음과 행실을 다 맞추는 자>를 중심해서 행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쳐서 다시 하게 하십니다.

- ◆ <마음>만 맞고 <행할 때> 안 맞으면, 50%입니다.
<마음>이 안 맞고 <행할 때>만 맞아도, 역시 50%입니다.

꼭 <마음과 행실> 두 가지를 항상 맞추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가 되고 ‘공력’ 이 됩니다.

- ◆ 천국에 가셔도 ‘이 두 가지가 일체 된 자들의 영’ 만
<천국의 최고 주관권>에서 삼위와 가까이 삽니다.

두 가지가 안 맞는 만큼

<삼위와 점점 떨어진 위치>에서 살게 됩니다.

- ◆ 천국에서는 모두 ‘한집’ 에서 안 삽니다.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그 위치는 삼위와 주께 마음과 행실을 맞춘 대로 결정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음과 행실을 맞추수록 - 같이 살고,**
맞추지 못할수록 - 멀리 떨어져서 삽니다.

<천국>도 그러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 ◆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갈까요?

전능자와 <진리>도 안 맞고,

<마음>도 <행실>도 다 안 맞는 자들의 영이 갑니다.

- ◆ 우상을 섬기는 자들 보세요.

자기들은 그 길이 맞다고 하며,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삽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 20:3-6)

- ◆ 하나님을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자기 기분만 좋습니다.

하나님과 ‘마음’도 ‘행실’도 안 맞게 사니,

실제로 <영의 형체>는 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로 그 <영>이 ‘자기가 기대했던 영의 세계’에 가 있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과 ‘마음과 행실’ 이 안 맞으면,
자기만 좋아서 믿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니
자기들의 세상에서만 존재하다가 끝납니다.

- ◆ 한번 <우상 종교>에 잘못 들어가거나 <진리>가 잘못 들어가면,
거의 평생 그대로 믿고 삽니다.

구약인들은 1000년, 2000년이 가도 안 바뀌었습니다.

신약인들도 앞으로 100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아들>이 100년 간다고, 스스로 <신부>로 바뀌겠습니까?

그냥은 안 바뀝니다. **개종해야** 바뀝니다.

<새 역사>로 와서 ‘보낸 자’에게 배우고 따라야 바뀝니다.

그러니 ‘기존 종교에 길든 자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아예 ‘다른 자들’을 전도하여 역사를 펴 나가야 됩니다.

- ◆ 선생도 ‘시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하고 싶어서 사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기성>이나 <신흥 종교>나

다 ‘본인들 교리’에다 ‘시대 말씀’을 적용하여 이용했습니다.

이에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니 안 된다. 새 땅에다 하자.

아예 새 시대에다 하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새 시대 2세들>을 아예 전도하여

그들에게 ‘시대 복음’을 넣어 주고 키웠습니다.

<마음>도 <행실>도 100% 하나님과 맞게 하니, 됐습니다!

<전환>

◎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 <장자권>을 뺏어야 됩니다.

이 <장자권>은 ‘영적 장자권’ 입니다.

◆ <영적>으로 살면 ‘**영**이 장자권을 가지고 사는 자’ 이고
<육적>으로 살면 ‘**육**이 장자권을 가지고 사는 자’ 입니다.

◆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가 신앙의 ‘장자’ 에 속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축복’ 을 받고 ‘영원한 상속’ 을 받게 됩니다.

◆ <육적>으로 살면, 누구나 그 순간 ‘**가인**에 속한 자’ 가 됩니다.
고로 <영적 장자권>을 뺏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면, ‘**아벨**에 속한 자’ 가 되어
<영적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 성경을 보면 이삭에게는 ‘두 아들’ 이 있었습니다.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조건을 세우고 ‘장자권’ 을 뺏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시대 축복’ 을 주셨습니다.

◆ 섭리인들 중에서 ‘영적 장자권을 뺏긴 자들’ 이 많습니다.
모두 뺏어야 됩니다.

<영적 장자권>을 가져야 ‘축복’을 받고 ‘상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 ◆ <영적 장자권>을 뺏으려면,
<마음 맞추기, 행실 맞추기> 두 가지 조건을 꼭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 <머리>를 중심’ 해야 됩니다.
<머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입니다.

- ◆ 새노래를 지을 때 성령님은
“<두 가지>를 맞춰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사>와 <곡>입니다.
<가사>가 <곡>을 결정하니, 이것을 알고 부르면 됩니다.

<가사>에 따라 ‘곡’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고,
<가사>가 슬프면 ‘슬픈 소리’가 나오면 되고,
<가사>가 기쁘면 ‘기쁜 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삼위 앞에도 <마음과 생각을 맞추기>에 따라
<실제 행할 것>이 흘러갑니다.

- ◆ 이 말을 왜 하는지 압니까?

<보낸 자>가 ‘조건’을 세워야
<삼위>도 ‘축복’을 주시며 역사를 펴 오셨습니다.

각 교회에서 ‘몸이 되는 자들’이 기도하고
그 위에 ‘머리가 되는 자’가 조건을 세워야,
마치 <몸>과 <마음>이 일체 되듯 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집니다.

<몸>과 <머리> 둘 다 조건을 세워야

<영적 장자권, 상속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 ◆ <주를 머리로 삼고 영적으로 사는 자>가 ‘장자’입니다.

<자기를 중시하며 육적으로 사는 자>는 ‘육의 장자’라도
실제 ‘영적으로는 차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을 상속하십니다.

- ◆ <휴거>도 ‘육신’을 가지고 ‘영’이 이루는 것입니다.
곧 <육의 행실을 통해 변화된 영>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기성은 “<육>이 휴거된다.”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니,

<육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기대하며 믿고 삽니다.

- ◆ <영>이 ‘하나님과 맞는 생각과 육의 행실’로 인해 변화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육>은 ‘영’과 일체 됐어도 ‘육’입니다.

이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일체 됐어도 <여자>는 ‘여자’ 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삼위>와 일체 됐어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이지 ‘절대자’ 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 ◆ <한 여자>가 ‘왕’ 과 결혼해서 일체 되어 살아도 그 여자가 ‘왕’ 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체>가 ‘머리인 주’ 와 일체 됐어도
<지체>는 ‘지체’ 이지 ‘머리’ 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 을 해야 됩니다. ‘조개기’ 를 해야 됩니다.

- ◆ 물과 물이 하나 되면, 모두 물이 되어 쪼갤 수가 없습니다.
<주와의 일체>는 ‘물과 물이 섞이는 일체’ 가 아닙니다.

주와 일체 돼도
<주>는 ‘머리’ 이며 <따르는 자들>은 ‘지체’ 입니다.

다만 ‘세상의 것이 아니다. 사탄의 것이 아니다.
주의 것, 삼위의 것이 되었다.’ 함입니다.

<주>가 십자가의 조건으로 죄를 대속해 주니,
<구원받을 자들의 영과 육>이 산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 ◆ 고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할 때도
를 ‘주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서 하고,
‘행실’도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한 번 맞추고 다 맞췄다고 하지 말고,
늘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마음과 행실>을 다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을 중심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는 ‘아벨이 한 격’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을 중심한 것’이 되고,
이는 ‘가인이 한 격’이 되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 ◆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가인>은 ‘육 입장’이고, <아벨>은 ‘영 입장’입니다.
곧 <육>은 ‘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 ◆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는데,
이 말씀에서 <육신>은 실상 ‘구원받을 자들’이고,
<영>은 ‘구원자’입니다.

모두 <영이 되는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이고,
그러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입니다.

- ◆ 역사적으로 볼 때도 <증거에 속한 세례 요한 역사>는 ‘가인 입장’ 이고 ‘육 입장’ 입니다.

곧 <영이 되는 구원자> 앞에 ‘세례 요한의 증거 사명’ 입니다.
고로 반드시 <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 ◆ <물질을 중심하는 교파>는 ‘육’ 에 속해 있습니다.

<가인 입장의 족속>을 데리고서는
‘하나님의 근본 뜻’ 을 이루지 못합니다.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는 ‘생명의 말씀’ 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 를 해 나갑니다.

- ◆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실상 그 행실은 ‘육을 중심’ 해서 사니,
<영적 장자권>을 뺏기고
<육을 중심한 장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자기 자신’ 과 ‘그 교파’ 를 증명합니다.

-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이시니 ‘영을 중심’ 하십니다.

고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을 분별할 때는**

<영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

<육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 ◆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아벨 입장’ 으로 ‘영적 장자권자’ 였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시대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못 하십니다.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 역사가 ‘영적 장자권을 가진 핵심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역사!

이 역사에서 <영원한 휴거의 축복>을 받고,

<천국 황금성>을 상속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가인 입장>으로 모두 ‘방계 역사’입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항상 <새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옛 시대의 삶>을 막으십니다.

모세 때, 때가 되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가나안 복지>로 가는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옛 시대 이집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
그들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옛 시대 이집트>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새 시대 가나안>으로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뼈저리게 고생만 하다 죽었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새 시대 섭리역사>에 와서 따르다가
가는 노정 중에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은
<본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옛 삶>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섭리역사>로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뼈저리게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 <새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옛 시대>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는 길>로 가면, 고생입니다. 고통입니다.

이것을 진정 깨닫고,

그 시간에 더욱 삼위와 주와 <마음과 행실>을 딱 맞추어

늘 삼위와 주와 동행하며 뜻을 이루며,

<영적 장자권>을 완전히 뺏어 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사랑과 기쁨과 희망의 세계>를 완전히 차지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의 마지막 성령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행실> 두 가지가 맞아야 같이 산다.

<영적 장자권>을 뺏어라. 뺏긴 자들이 많다.

절대 ‘머리인 주와 일체’ 되어라.

〈일체〉란, ‘마음과 행실이 모두 맞는 것’ 이다.

〈영적 장자권〉을 가져야 하나님이 동행하며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뜻을 이루시며, 영원한 상속을 해 주신다.

모두 〈영적 장자권〉을 뺏고 주를 맞아라.”

◎ 말씀 마쳤습니다.